

KOTRA Global Insight

- 2015년 권역별 진출전략 -



순 서

<권역별 진출전략>

I. 중 국	1
II. 일 본	8
III. 북 미	12
IV. 유 럽	15
V. 서남아	19
VI. 동남아대양주	24
VII. 중 동	28
VIII. 중남미	32
IX. C I S	36
X. 아프리카	40
[별첨] 권역별 주요 경제지표	44

I. 중 국

1. 중국시장 특성 및 핵심이슈

《 중국시장 특성 》

- ◇ **고속성장에 따른 개인 소비력 급증 → ‘소비 대국화’**
 - * '14년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 세계 1위 전망
 - * 中 소비시장 규모 전망 : ('13년) \$4.7조 → ('15년) \$5.7조 → ('20년) \$9.9조 달러
-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세계 1위 교역국가로 성장**
 - * '14년 상반기 상품 무역규모 2조달러 돌파로 세계 1위 차지
(2위) 미국 \$1조9,808억, (3위) 독일 \$1조3,937억, ... (8위) 한국 \$1조752억 달러
- ◇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 균형발전 및 산업고도화 박차**
 - (과거)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자로서의 역할
 - (현재) 기술력과 자본으로 기업 체질 개선,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
 - * 포춘 500대기업 중국기업 수 : 73개사('11년) → 89개사('13년) → 95개사('14년)
 - * 중국에 대한 인식 : (WSJ 설문조사) “G1은 중국이 될 것이다” 50% 응답
 - * 미국 추월시기 전망 : (IMF) '16년, (이코노미스트) '18년, (세계은행) '20년

핵심 이슈

-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기조 속에 ‘개혁개방’ 가속화 전망**
 - * 한중 FTA, RCEP, FTAAP 등 FTA 확대로 글로벌 통상주도권 강화 추진
- **新도시화 정책 →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 * '20년까지 도시화율 60% 달성 목표, 환경오염·에너지 문제해결 및 중서부 내륙개발 추진
- **수출+투자 중심에서 내수소비 자립형 경제로 전환 시도**
 - * 에너지절약가전 보조금 등 소비진작책 추진, 보험·의료 등 민생분야 투자 확대
- **첨단기술 R&D, 낙후/생산과잉 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선진화 추진**
 - * R&D GDP 점유 비중 : 1.8%('10년) → 2.2%('15년e)
- **시진핑 시대 “사회격차 해소 및 질적 성장” 강조 및 CSR 강화**
 - *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국무원), ☞ '13년 중국진출 한국기업 CSR 규모 800억 원

-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주력
 - * 중국 정부 '14년 中 1천만 일자리 창출 추진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고속성장의 종료와 중속성장 기조속에 점진적 성장 둔화 예상
 - * 최근 2년 7% 중반대('13년 7.7%, '14년 7.4%) 유지, 15년 7% 초반대 성장률 예상
 - * ('16-'20년) 과열억제, 인구감소, 긴축금융 등 요인으로 6%대 성장률 예상
- '수출중심(old normal)'에서 '내수중심(new normal)'으로 전환
 - *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다는 '상시적 미니 부양책' 으로 경기조정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세수우대, 기금조성 등을 통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
 - 신흥전략산업 GDP 비중 확대 : 2%('10년) → 15%('20년e)
 -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 서비스업 비중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강화
 - * 서비스업 GDP 비중 : 43%('10년) → 47%('15년e), 장려업종 수 : (11.5규획) 33개 → (12.5규획) 112개
- 신흥 유통채널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추진
 - * '13년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규모 1조 8,851억위안 (전년대비 42% 증가)
- 문화콘텐츠 산업의 빠른 발전 및 규모 급성장 예상
 - * '10년-'15년 기간 20% 이상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 2배로 확대
-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 10년 이상 두 자리 수 성장세 지속
 - * '13년 생산량/판매량 전년대비 14%, 13% 증가한 2,211만대와 2,198만대 기록
- 전통산업(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화학 등)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경쟁 심화

③ 신규 정책 · 규제

- (통상) 지역경제 블록화에 대응 위한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 가속
- (산업보호) 자국기업 및 브랜드 육성 정책 본격화
- (기업) 新회사법('14.3.1) 시행으로 '활발한 기업활동' 촉진
- (개방확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등 시장개방 실험 확대 전망
- (구조조정) 심각한 생산과잉 해결 위한 정책 추진

④ 사회·문화적 변화

- (新소비채널: 온라인마켓) 인터넷 보급 확대('14년 상반기 46.9%)에 따라 전자상거래 고속 성장
- (新소비성향: 고급화·다변화) 중국내 고소득층 · 젊은 소비층 등장으로 고급재 및 서비스 수요 대폭 확대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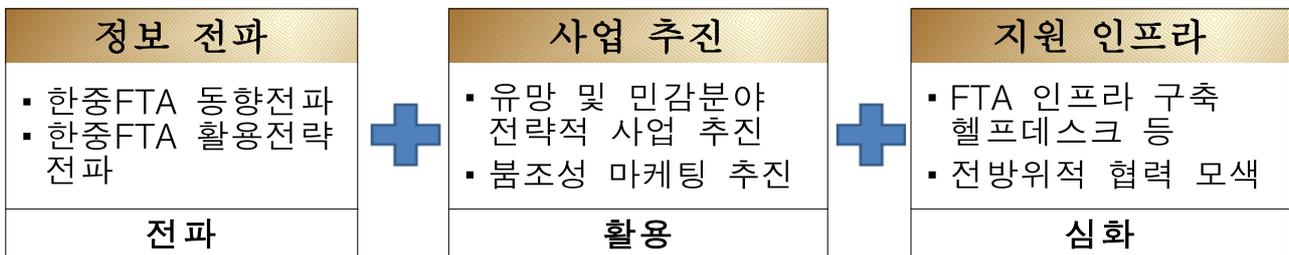
- ◇ 한중 FTA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성과 극대화
- ◇ 소비재·IT 등 유망 내수시장 집중 공략
- ◇ 중국시장 고도화에 기반한 신규영역 개척
- ◇ 유치업종 다변화 등 전략적 중화권 투자유치 강화
- ◇ 중국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CSR 확산
- ◇ 중국 내수시장 정보 생산 및 전파 기능 강화

세부 전략

① 한중 FTA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성과 극대화

- ◇ 서비스, 자동차 부품, 전자 등 수혜 예상분야에 대한 안정적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농식품 등 피해 우려 분야 수출역량 강화 지원

○ 한중 FTA 효과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 전략 가동



○ 한중 FTA 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기업화 추진

* 상설전시관운영, 공동브랜드 수출지원, 투자유치 등을 통한 공단 활성화

한중 FTA 활용 사업 사례(잠정)

구분	내용	시기	장소
정보 전파	한·중 FTA 이해와 활용 전략 ↳ FTA 내용소개, 원산지 증명제도, 관세환급 제도 등	1월	국내
마케팅	(산업별) 유력 글로벌/대형 기업 맞춤형 상담회 - 한중 FTA 이니셔티브 수출상담회 - (전자/부품 등) Global Partnering China 2015 - (자동차/조선) Korea Auto-parts Plaza - (서비스) Service Big Plaza	3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국내 중국 중국 국내
지원 인프라	한중 FTA 해외 활용센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대응반	연중 연중	중국 중국
특새 시장	(섬유/패션) 섬유류 테스트 마케팅 (농수산) 농식품 수출촉진 행사	1분기 연중	중국 중국

② 소비재·IT 등 유망 내수시장 집중 공략

◇ 내수중심 전환, 글로벌 협력, 균형발전 등 시장변화를 반영한 사업개발

- 가공무역 위주에서 내수기반 성장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이 변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마케팅 및 진출전략 필요

* 로버트 포겔('93년 노벨경제학상)은 2040년 중국의 GDP가 124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대형유통망 협력을 통해 완제품 및 소비재 수출확대 추진
- 연간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공략 필요
-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중국기업과의 협력 등 현지화 진출 전략 추진
- 中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IT, 자동차 위주에서 의료, 유통, 중장비로 확대
 - * 협력 범위는 부품소싱에서 R&D, 디자인, 기술협력 등 다각화
- 권역별로 시장특징, 중점산업, 소비성향, 유망분야 등 검토를 통해 차별화한 진출품목 발굴 및 전략 필요
 - * 예; IT(베이징/선전), 신선식품(칭다오), 환경(광저우), 소비재(상하이), 청두(가공식품) 등

③ 중국시장 고도화에 기반한 신규영역 개척

◇ 산업고도화, 프로젝트, 한류 등에 따른 신규 시장 영역 개척

- 소비수준 제고, 산업고도화 등에 따라 유망분야로 부상하는 영역 공략
 - 유망분야 공략을 위해 기존 온라인 협력은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연계한 신규 플랫폼*을 개발
 - * O2O 사업 : 온라인 활용 제품 판매 및 홍보, 오프라인 수출 마케팅으로 연계
 - * 유망분야 : 농식품, 에너지절감, 환경, 유아용품 등
 - * '03-'11년간 연평균 성장률 120%로 세계최고 수준, 온라인쇼핑이용자 2.4억
- 중국 민생 SOC(신도시화 등)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분야 진출 추진
 - (진출 방법) 프로젝트 정보수집 → 마케팅 행사 개최 → 수출성사
 - * 파생분야 : 전력기자재, 의료설비, 수처리기술 및 설비, 대기오염 처리 기술 등
- 한류 2.0 시대, 한류 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 확대
 - * (과거) 단발적 수출 → (향후) 기술협력, 지분투자 등 통해 지속적 이익 창출
- 수처리, 대기, 폐기물 등 환경분야에 대한 집중 마케팅
 - 국내기업간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역량 제고
 - * 사례 : 지방정부 상수도 사업 진출 (A사, K-Water 협력으로 동반 진출)

④ 유치업종 다변화 등 전략적 중화권 투자유치 강화

- 부동산 등에 국한된 유치에서, 업종 다변화 및 유치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 필요
 - 중국 및 글로벌시장 수출을 목표로 한중 파트너십 지분투자 혹은 JV그린 필드 투자 유치
 - * 대상업종 : IT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의류, 뷰티, 식품 등
 - 한중 정상외교에서 발굴한 유력투자가를 대상으로 밀착 공략 추진
- 한국을 가공수출 게이트웨이로 활용하는 중국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 * 대상 : 물류, 화장품, 가공식품 등

⑤ 중국형 일자리 창출 사업 및 CSR 확산

- 현지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한 K-Move 붐 확산
 - * 우수창업 아이디어 발굴, 마케팅과 연계한 진출기업 취업 지원 추진
- 민관 CSR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현지진출형 마케팅 사업 동반 추진
 - 재중 CSR기업협의회 운영, 중소기업 진출 지원 CSR프로젝트* 발굴
 - * 환경보호, 에너지, 의료, 프랜차이즈 등

중국진출기업 CSR 추진 7계명

- | | |
|--------------------------|-------------------------|
| 1)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 병행하라 | 5) 독자보다 연합하여 추진하라 |
| 2) 맞춤형 주제로 효과를 배가하라 | 6)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
| 3) 중국내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라 | 7) 내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하라 |
| 4) 크게 한 번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하라 | |

* 자료원 :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KOTRA)

⑥ 중국 내수시장 정보 생산 및 전파 기능 강화

- 중국의 주요 현안이슈 발굴 및 신속 정보전파 체제 강화
 - 전문가 그룹과 해외무역관 활용으로 심층 및 생생 정보 전달
- 한중 FTA 시대 중국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진출전략 제언
 - * '농식품진출전략', '내수시장 전략지도', '유망 진출품목' 등 발간

II. 일본

1. 일본시장 특성 및 핵심이슈

《 일본시장 특성 》

- ◇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나, 무역의존도가 낮은* 거대 내수시장
*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8%에 불과(한국 87.4%, 중국 49.5%)
- ◇ 제조업 경쟁력이 견인하는 국가
* 2010년 UNIDO(UN 공업개발기관) 제조업 경쟁력 지수 : 일본(1위), 독일(2위), 미국(3위), 한국(4위) 순
- ◇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기술 대국
* R&D 비용 전 세계 2위(17조 400억엔), 신기술 특허 출허 건 수 세계 2위(5만 7천 건)
-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시장
* '12년 기준,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 45%

핵심 이슈

- '14년 12월 총선 압승으로 아베 내각 정책 추진에 박차
 - 아베총리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며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차지하며 압승, 재집권에 성공
- 엔저 기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 3년간 엔화가치 약 58% 하락
 - * '12.2.3 \$1 달러 76.11엔 → '14.12.5 \$1 달러 121.4엔
 -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변동이 없을 예상되어 엔화약세 지속 전망
 - * '15년 \$1 달러당 112엔-120엔 전망 (메를린치 전망치)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관계, 분위기 반전 필요
 - * 양국 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으로 우호 분위기 조성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소비세 인상 (5→8%) 이후 성장세 주춤
 - * '12-'13년 1.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4년에는 0.9%, '15년에는 0.8% 성장 예상
- 엔화 약세에도 에너지 수입 급증 및 제조업체 해외이전 확대로 무역적자 지속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가전·전자부품은 생산 감소세
 - * (자동차)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동으로 내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소예상
 - * (가전) 각사의 구조개혁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가 서서히 드러나며 감소예상
 - * (전자부품)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및 국내생산거점 감소로 소폭 감소예상
- 일반기계는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로 생산 증가
 - * 내수면에서 기업수익 개선, 외수면에서도 수출이 회복세
- 철강은 내수부진으로 시장 축소 우려, 석유화학은 보험세 전망
 - * (철강) '13년도 건설부문 수요증가에 따른 내수건인으로 성장했으나 향후 수요 감소 우려
 - * (석유화학) 내수는 부진할 전망이나 수출입 균형이 개선될 전망

③ 신규 정책·규제

- 산업 부흥 플랜, 전략시장 창조 플랜, 글로벌 전략으로 구성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향후 10년간 명목 3%, 실질 2% GDP 성장 목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액션 플랜]

산업 부흥 플랜	전략시장 창조 플랜	글로벌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신진대사 촉진 · 고용제도 개혁·인재양성 강화 · 과학기술혁신 강화 · IT 활용 촉진 · 입지 경쟁력 강화(에너지 절약 등) · 중소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청정에너지 수급 실현 ·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지역자원으로 소득 창출(농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통상관계 구축(TPP, RCEP 등) · 해외시장 획득(인프라 수출) · 글로벌화 촉진(FDI, 글로벌 인재 양성)

④ 사회·문화적 변화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으로 의약품 및 헬스케어 수요 증가 기대
 - 일본 총인구는 1억 2,713만 명이나 2060년에는 8,674만 명까지 감소전망
- 절약소비가 대세이나 일부 선호품목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소비' 부각
 - 절약소비를 중시하는 가운데, 품질, 라이프스타일, 안전성 중시 경향 강화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일본 글로벌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Global Supply Chain 진입
 - *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 ◇ 일본정부의 정책변화 및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유망분야 집중공략
 - * IT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바이오산업
- ◇ 프리미엄 소비재로 거대 일본 내수시장 진출
 - * 실버산업, 미용산업

세부 전략

① 일본 글로벌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Global Supply Chain 진입

[자동차부품]

- 자동차산업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0.6%
- 친환경·저연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범용부품과 핵심전략부품의 Dual 진입 전략 추진
 - (범용부품) 대기업의 글로벌 전개에 맞춰 서플라이체인 진입 추진
 - (핵심전략부품) 日완성차/1차벤더의 전략에 기반한 제안형 마케팅 사업 추진

[전자부품]

- 자동차용 전자부품 수요 증가
- 내비게이션, 계기판 디스플레이 등 유망품목
 - * '11년 이후 전자부품(HS코드 851220기준)의 출하금액 기준 시장규모는 3년 연속 증가세
- 시장침투 확대전략
 - 초기 단품중심의 시장침투에서 모듈형 부품, 공동 R&D 등으로 시장진출 유형을 단계적으로 고도화

② 일본정부의 정책변화 및 일본재흥전략에 따른 유망분야 집중공략

[IT산업]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My Number 제도 도입 ('16)
 - * 네트워크 보안 수요 증가로 1-3조엔 규모 시장 형성 기대
- 모바일서비스, 보안, 빅데이터 등 최종 수요자인 글로벌 기업의 신규 사업 트렌드 분석 및 파트너 발굴을 병행하는 전략 필요

[신재생에너지]

- 일본 신재생 에너지 시장 급성장 전망
 - * 2011년 3,680억 엔에서 2020년 1조 100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후지경제)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소매 경쟁체제 돌입, 해외조달 확대예상
 - * 도요타, 파나소닉 등 업종 불문, 200여개 일본 기업이 시장 참여 준비 중
- 일본 기업과의 사업 제휴 전략

[건축자재]

- 일본 인프라 및 전자재 시장 확대 추세
 - * 국토강인화 계획 (10년간 200조엔 투자), 2020 올림픽 특수 (경기시설 4,700억엔, 인프라 투자 55조엔)
- 에너지절약 관련 리폼 및 우량 단열재 등 보급 촉진 전망
 - * 일본주택 5,000만호 중 단열기능이 없는 주택은 2,000만 호 (국토교통부)
- 친환경 소재의 전자재에 집중
 - 일본정부의 에너지절약 관련 리모델링 촉진책 등을 활용

[바이오산업]

- 의료,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
 - * (의료) 2015년 시장규모 예측: 1조 7,572억 엔 (2010년 대비 173.3% 증가)
 - * (농업) 2015년 시장규모 예측: 6,441억 엔 (2010년 대비 123.2% 증가)
- 일본정부의 구조개혁과 맞물려 집중 육성될 전망
 - * 일본재흥전략 2014년 개정판에 관련 내용 명시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일협력 전개
 -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 제휴 체결

③ 프리미엄 소비재로 거대 일본 내수시장 진출

[실버산업]

- 일본 실버산업, 총 100조엔 규모의 초거대 시장
 - * 시니어(60세 이상)는 개인소비의 40%를 차지, 향후 1년에 1조엔씩 시장규모 확대전망
- '쾌적, 즐거움, 보람'을 추구하는 삶의 질이 향상된 新라이프 추구
 - 품질, 라이프스타일, 안전성 중시 경향 강화 추세
- 일본 실버시장 동향 파악을 통한 벤치마킹 전략 필요

[미용산업]

- 일본 화장품시장은 고도의 성숙시장이나 지속 가능한 시장
- 최근 화장품시장이 고급제품·중저가제품의 양극화 현상 심화
 - 한국 화장품은 고품질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기능성 제품 등의 전략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

Ⅲ. 북미

1. 북미시장 특성 및 핵심이슈

《 북미시장 특성 》

- ◇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전 세계 GDP 25%, 수입의 15% 차지
 - * '13년 GDP : 미국 16.8조 달러, 캐나다 1.8조 달러
- ◇ 부가가치 기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시장
 - * 부가가치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 對북미 21.5%, 對중 14.9%, 對EU 18.0% (WTO)
 - *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글로벌 아웃소싱 패턴을 반영하여 부가가치 창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무역통계 (OECD-WTO)
- ◇ 불필요한 규제가 없고, 우수한 인적자원과 혁신환경* 보유
 - * '14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 중 39개가 북미(미국) 기업 (Forbes)

핵심 이슈

- FTA 발효로 국내기업 진출여건 한층 개선
 - * 한미 FTA 발효('12.3.15). 한캐 FTA 발효('15.1.1)
- 셰일가스 혁명으로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In-bound 투자 유치 견인
 - * 최근 5년간 투자대상 산업별로 연평균 FDI 유치금액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43% 기록
- 제조업 르네상스 : 리쇼어링 확산 +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 일본, 중국이 대미 투자 분야에서 두각
 - * '13년 기준, 일본은 4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대미 FDI 투자 1위국으로 급부상(중국은 140억 달러 투자)
- 모바일 쇼핑 확대*로 온라인 시장 급팽창
 - * '13년 미국 온라인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2,643억 달러 기록
- 자유무역주의 기조 공화당 양원 장악으로 TPP* 비준 가속화 예상
 - *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미국, 일본을 비롯해 총 12개국이 참여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미국 경제 나홀로 호황 : '15년 GDP 성장률 2.6~3.0%(FRB), 3.1%(IMF) 기대
- 내년 상반기 중 FRB의 기준금리 인상 : '15년 6월 FOMC 이후 인상 유력

② 산업별 동향

- 에너지,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 금융, 부동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표 개선 뚜렷
 - 특히, 全美 생산의 가장 큰 비중(20%)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강세
 - * 제조업 총생산(Gross Output) 변화 : 5조 달러('10) → 6.9조 달러('13)

[주요 제조업 연도별 총생산(Gross Output) 추이 (US\$ 십억)]

	'10	'11	'12	'13
수송기계 (자동차·부품 등)	670.8	745.2	844	925.9
식품·음료	804.3	866.8	890.2	910.6
화학	714.9	779.7	766.8	784.4
기계	316.1	365.6	403.1	414.3

③ 신규 정책·규제

-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AMP)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 * 국가안보 관련 제조업 역량 확충, 첨단소재개발·보급기간 단축, 차세대 로봇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강력한 드라이브
 - * '14년 만료된 수출확대전략(NEI) 이후 기존 수출확대 지원전략을 보강한 NEI/NEXT 추진
-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TTIP(미-EU) 등 FTA 체결 추진

④ 사회·문화적 변화

- 히스패닉이 新소비계층으로 부상
 - *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12.5%('00) → 16.9%('10) → 30%('30, 예상)
 - * 구매력 : 1.2조 달러('12) → 1.5조 달러('15, 예상)
- Made in USA 소비자 선호도 증가 : 54%('04) → 68%('13)(NY Times)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신규 먹거리 창출시장(온라인, 히스패닉, 세일가스) 선점 사업 중점 추진
- ◇ FTA 효과 + 개방형 혁신 접목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확대

세부 전략

① 신규 먹거리 창출시장 선점 사업 중점 추진

- (온라인) B2B, B2C, 오픈마켓, 홈쇼핑 등 각각 다른 온라인 시장 구조와 특징에 부합해 품목 및 구조별로 차별화된 전략 개발
 - * 초기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 현지 유력 대형 유통망 파워 벤더를 적극 활용 검토
- (히스패닉) 한류 + 히스패닉의 문화와 취향에 맞는 컨셉으로 마케팅 추진
- (세일가스) 우리정부 정책금융 지원 +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한 판로 개척
 - *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년까지 수출입은행 여신 규모를 21조원으로 대폭 확대
 - * GS 건설, SK 건설 등 국내 대형 EPC 업체와 국내 부품사와의 협력 확대

② FTA 효과 + 개방형 혁신 접목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 자동차 · 중장비 부품 · 첨단 부품소재 등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 수위·범위 확대
 - * (1단계) 아웃소싱 진출 기반 확보 → (2단계) 공동 R&D 등 밸류체인 초기단계부터 협력 범위 확대 → (3단계) 기술거래, M&A, 지분 투자 등으로 협력 단계 심화 발전

③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확대

- 바이오 신약 등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단기간에 기술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산업 내 유망 기업을 중점적으로 M&A 추진

IV. 유럽

1. 유럽시장 특성 및 핵심이슈

《 유럽시장 특성 》

- ◇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사실상의 세계 최대 단일시장
* '13년 기준 GDP 17.4조 달러(23%), 상품수입 5.8조 달러(32%)
- ◇ 권역별 시장특성, 소득수준, 주요 산업 등이 차별화된 시장
* (서구) 고부가·첨단기술 제조업 강국, (북구) 고소득 복지국가
(동구) 서유럽의 생산기지, (남구) 재정위기 진원지
- ◇ 권역별 산업·기능 특화에 따른 높은 역내 교역 비중
* EU 역내교역 비중: 57.7%('11) → 56.3%('12) → 57.2%('13)
- ◇ 혁신기술로 승부하는 초고도 선진시장
*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145개사(29%), Hidden Champion 기업 1,966개사(72.5%) 소재

핵심 이슈

- 장기불황 여파로 “Made in Europe” 인기 등 자국 제품 보호주의 강화
* 프랑스: Made in France 제품 사용 장려, 독일: 자국 제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 증가
-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현지투자 증가
* 중국의 對유럽 M&A: ('07) 25건, 64억 달러 → ('12) 78건, 106억 달러(China Daily Europe)
** 일본: 내수시장 부진으로 유럽기업 M&A에 따른 현지시장 및 권역별 생산기지 확보 추진
- 러시아 리스크에 따른 교역 축소 우려
* 체코, 폴란드 등 러시아와 교역 비중이 높은 동구권에 타격
- 유럽 역내 제조기업과의 경쟁 심화
* 지리적 불리함(다품종 소량 주문, 빠른 납기 요구, 사후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친환경·에너지소비 관련 규제 강화
* 에코디자인: '14.7.1일부로 컴퓨터 및 서버 관련 제품에 확대 적용
** EU 에너지 레이블 '15.1.1일부로 TV, 냉장고, 조명,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온라인유통 시 표기 의무화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장기불황 탈출이 기대되나 회복 정도는 둔화될 전망
* EU GDP 성장률: 당초 '14년 1.6%, '15년 2.0%에서 1.3%, 1.5%로 하향조정(EU 집행위)
- 高실업률, 디플레이션, 러시아 및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기회복의 관건
* EU 평균 실업률은 10.3%(14년 전망치), 물가상승률은 0.4%(14.3분기) 수준

② 권역별 동향

- (서구) '14년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역내 교역 비중 평균 60.2%,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평균 1.7%(13년, Eurostat 기준)
- (동구) 서유럽의 경기회복세로 동유럽 경제 역시 호전되는 추세
* 서유럽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60~80% 수준,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평균 3.05%
- (북구) 덴마크, 스웨덴 등 非유로존 국가가 북유럽 경기회복을 주도
* 1인당 GDP 평균이 5만 5,000 달러 선으로 최고 수준,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평균 0.3%
- (남구) 장기불황 여파 및 정치 불안 등 리스크 상존
* '14년 GDP 성장률 평균은 0.8%로 다소 불안,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평균 2.2%

③ 신규 정책·규제

- 철강, 자동차 등 효자산업을 위시한 유럽 차원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14.2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CAPS 2020 계획(12.11월) 등
- 비관세장벽·반덤핑 규제 등 수입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통제 강화

④ 사회·문화적 변화

- 온라인쇼핑 인구 증가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 지속 확대
* 서유럽 및 북유럽을 중심으로 '17년 기준 시장규모가 1,910억 유로로 확대될 전망
- 친환경, 재활용품, 웰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식품·문화상품·소비재 등으로 한류 영향력 확대 기대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권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 경기회복 및 한-EU FTA 효과 활용
- ◇ 현지 기반 구축에 따른 철저한 현지화 추구
- ◇ 현지 유력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발굴

세부 전략

① 권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서구) 자동차·부품, 제약·의료기기, IT, 기계 등 주요 산업 글로벌기업 및 히든챔피언과의 사업협력 확대
 - * 단순납품에서 공동 R&D, 기술제휴, M&A 등으로 협력 다각화
- (동구) 현지진출 유력기업의 신규 구매선 수요 공략, 소비재의 경우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 서유럽의 생산기지로 자동차/부품, 가전 등 현지진출 기업의 소싱 수요 증가 기대
- (북구) 한국제품 점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수출마케팅과 국가·기업 이미지 제고 노력 병행 필요
- (남구) 건축성향 지속에 따라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제품으로 승부

② 경기회복 및 한-EU FTA 효과 활용

- (수출) 선택과 집중, 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고가·고품질 시장 회복수요 선점
 - 시장수요와 한국기업의 강점이 맞물리는 분야에 집중
 - OEM 납품을 넘어서 고유상품 공급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필요
 - * 對유럽 수출의 60% 이상이 주문자 생산방식

○ (투자유치) 한-EU FTA 활용 투자유치 전개

- FTA에 따른 對한국 수출 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통한 현지생산 및 공급 방식으로 전환 유도

* 생산시설 설립 및 이전이 용이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시장성이 높은 제품 관련 기업 우선 유치
(예: 유압장치, 디젤엔진, 전자집적회로 등)

○ (공공조달) 과거 낙찰실적 요구 금지 등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기회 선점

- 유망품목 주요 발주처, 조달벤더, 컨설팅 업체 등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EU 기금 대상 프로젝트 집중 공략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 저변 확대

* '14-'20년 중동지역에 1,809억 유로의 기금 배정

③ 현지 기반 구축에 따른 철저한 현지화 추구

○ (수출/공공조달) 바이어 요청 인증 사전 취득, 현지 협력업체를 통한 물류 및 사후서비스 품질 확보가 중요

○ (투자진출) 생산비가 낮은 동구권에서의 공장설립으로 EU 역내 공급에 따른 현지수요 대응능력 제고

○ (공공조달) 원활한 입찰업체 등록, 납품 경쟁력 확보,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법인설립 등 현지화 필요

* 법인설립이 어려울 경우 수주 경험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현지기업과의 파트너링 강화

④ 현지 유력기업과의 다양한 협력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발굴

○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럽 및 제3국 시장 진출 추진

* 한국+프랑스 → 북아프리카, 한국+스페인 → 중남미, 한국+영국 → 걸프

○ 공동 R&D, 기술제휴, 공동생산 플랫폼 구축 등 유력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사업 수요 창출

V. 서남아

1. 서남아시아 시장 특성 및 핵심이슈

《 서남아시아 시장 특성 》

◇ 16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

- * 인도 12억,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1.7억, 스리랑카 2천만
- * 서남아 '1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억 8천만 명 → '50년 14억 3천만 명(UN)

◇ '14년 평균 5.3%대의 경제성장률 시현

- * '14년 인도(5.5%), 스리랑카(7.2%), 방글라데시(5.4%), 파키스탄(3.7%), 세계평균(2.8%) (WB)
- * '16년까지 연 6% 이상(파키스탄 4%)의 성장 지속 전망

핵심 이슈

○ 내수시장 확대 및 구매력 증가

- * (인도) 구매력평가 기준(PPP) 세계 3위

○ 인프라 개선, 도시화 프로젝트, 제조업 육성 정책 적극 추진

- * (인도) 스마트시티 100개 도시 구축 프로젝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인도에서 만들라)' 캠페인으로 경제·산업 혁신
- * (파키스탄) 공공자산 매각자금 활용한 인프라 개발
- * (스리랑카) 관광산업 활기로 호텔, 쇼핑몰 등 건설업 성장 기대

○ 경쟁국의 공격적인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 * [방글라데시] (일본) '벵골만 산업 성장 벨트' 계획 원조 협약 (아베총리 방글라데시 방문, '14.9월)
(중국) 상수도 플랜트, 다목적 교량 건설 등 개발 원조에 기본 합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 방중, '14.6.9)
- * [인도] (일본) 32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모디 총리 방일, '14.8월)
(중국)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규모 교역 및 경제개발 계획 합의(시진핑 주석 방인, '14.9월)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서남아 전체 교역규모 연평균 20.4% 증가('04년 ~ '13년)
 - * 교역 규모 : 2,417억달러('04) → 5,256억달러('09) → 9,426억달러('13)
 - * '13년 품목별 교역량 : 연료 및 채굴품(33.7%), 제조품(26.9%), 기계 및 수송장비(10.7%), 농산물(5.7%), 화학제품(5.6%) 순
- 서남아 지역 2105년 5.9% 경제성장 예상
 - * 세계경제 저성장 환경에서도 서남아지역은 '14년 5.7%대의 경제성장률 달성 예상
 - * '14년 : 인도(5.6%), 스리랑카(7.0%), 방글라데시(6.2%), 파키스탄(4.1%), 세계평균(3.3%)
- 외국인 투자액은 연평균 17.3% 증가('04년 ~ '13년)
 - * 對서남아투자 규모 : 75.9억달러('04) → 320.2억달러('13)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인도) 서비스 및 IT 산업은 민간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성장세 지속, 제조업은 정부 의사결정 속도 저하 및 각종 규제로 부진
- (파키스탄) 섬유산업 및 가전산업 발달, 타 분야는 부진
 - * 세계 4위 면화 생산국으로 섬유산업이 GDP의 9.5%를 차지하며 고용인원은 전체 노동 인구 4천 9백만 명의 30%인 1천 5백만 명임
 - * 다국적 기업과의 현지 합작을 통해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 기지 역할
-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이외 뚜렷한 전략산업 발달은 미미
 - * 의류 산업은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최대 산업으로 전체 수출의 79% 차지
- (스리랑카) 관광업에 집중되는 산업구조
 - * '09년 5월 내전 종식 후 외국인 관광객은 '11년 85만 명(전년대비 30.8% 증가), '12년 100만 명, '13년 127만 명을 기록

③ 신규 정책·규제

- (인도) 모디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제조업 육성에 총력
 - * '14년,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도로, 관개, 도시 개발, 수처리 등 인프라 부문 예산을 '13년도 대비 24% 증액
 - *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산업 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 발표('14.9월)

- (파키스탄) 수출 진흥을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 수립
 - * 전략적 무역정책 체계(Strategic Trade Policy Framework, STPF)를 바탕으로 수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성장 달성 목표

- (방글라데시) 기업운영 세제 완화 및 신규 투자 기업 세금 면제
 - * 비상장기업의 법인소득세율 인하 37.5% → 35%
 - *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Tax Holiday를 '19년 6월까지 연장하여 업종 및 투자지역에 따라 5~7년간 법인소득세 면제혜택 제공

- (스리랑카)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 투입강화
 - * 10개년 국가 계획('06년~'16년)의 일환으로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 전개

④ 사회·문화적 변화

- 생산가능인구수(15세~64세) 증가 추세 지속
 - * 서남아의 생산가능한 인구는 10억 8천만명에서 '50년 14억 3천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 보유
 - * (언어) 인도는 헌법상 공식언어만 17개, 12억 인구, 29개주가 있으며 주마다 다른 문화를 보유
 - * (종교) 인도는 힌두교가 80.5%, 무슬림이 13.4%로 파키스탄(무슬림 96%), 방글라데시(무슬림 89%), 스리랑카(불교 69%)와 종교 구성과 차이를 보임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국가별 수출품목 차별화 전략 구사
- ◇ 투자유치 정책 활용 유망 산업 투자 진출
-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출

세부 전략

① 국가별 수출품목 차별화 전략 구사

○ 국가별 유망 수출품목 및 진출 국가 선정 필요

- * (인도) 플라스틱류, 건자재(화재경보기, 조명기구 등), ICT 제품군(전기 회로 등) 등 원자재 및 IT 관련 제품 수요 증가
- * (파키스탄) 제조업 원자재 수요 증가로 전자기기 소재, 철강, 플라스틱류 수출 유망
- * (방글라데시) 건설 시장 및 생활 소비재 시장 활성화로 건자재(승강기, 디지털도어락 등), 화장품 등 수요 증가
- * (스리랑카)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의료장비 등 수출 유망

② 투자유치 정책 활용 유망 산업 투자 진출

○ 국가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투자 진출

- * (인도) 라자스탄 한국전용단지 활용을 통해 인도 내수시장 진출 강화 및 중동·아프리카 등 주변국 수출 전진기지 마련
- * (방글라데시) 수출산업(섬유 등) 위주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제3국 수출을 위한 전략적 기지 마련

③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진출

○ (인도) 발전 플랜트, 도로 건설, 통신,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부문 프로젝트 참여

- * 인프라 수요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으로 인프라 시장규모는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 2018년 99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연계, 전력 프로젝트 발주 활성화 예상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너지·물류 프로젝트 진출

-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급증하는 전력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프로젝트 수요 증가
- * (스리랑카) 콜롬보항, 메감푸르항 등 물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

○ (파키스탄, 스리랑카) ODA를 활용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 (파키스탄) 대우건설의 파키스탄 라호르-이슬라마바드 구간 고속도로 건설로 생성된 한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ODA 산업 진출 모색
- * (스리랑카) 스리랑카 e-Governance 사업 등 진출 유망

VI. 동남아 · 대양주

1. 동남아 · 대양주시장 특성 및 핵심 이슈

《동남아대양주시장 특성》

- ◇ 지칠줄 모르는 성장엔진으로 세계 경제성장 견인
 - * 아세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하여 포스트브릭스 시장으로 부상
- ◇ 젊은 인구와 저임금으로 제조업 생산기지로 각광
 - * 아세안 생산가능인구비중 2030년까지 65~70%, 임금은 중국보다 낮은 수준
- ◇ 막대한 천연,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세계 자원공급 기지 역할
 - * 아세안은 천연자원의 보고(인니 팜오일생산 1위, 고무생산 2위), 호주는 광물 자원이 전체수출의 75%차지
- ◇ 북대서양 항로에 이은 세계 두번째 무역항로로 지정학적 요충지
 - *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1/3 차지, 한중일 삼국이 중동오일 수입하는 최대 오일루트

핵심 이슈

- 아세안 경제공동체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 * '15년말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이동 자유화로 인구 6억명(단일시장 기준 세계 3위), 경제총생산(GDP) 2조 3천억 달러 시장형성
- (싱가포르) Smart Nation Platform 구축 플랜
 - * 세계 최초의 Smart Nation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마련 개발 계획
- (인도네시아) 조코위 신정부의 개혁정책 본격화
 - * 인프라확충, 부정부패 축소, 외국인투자확대, 에너지보조금 철폐 등 주요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혁 단행
- (태국) 지역 기반 인센티브(Zone 1, 2, 3)제도를 폐지하고 Activity 기준으로 혜택을 차별화
 - * 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중심산업 등에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타산업은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토지소유 가능, 비자 등의 인센티브만 부여
- (미얀마) 대선 및 총선실시
 - * 49년간의 군부 지배를 종식시키고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 '15년말 총선과 대선 시행하며, 미얀마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결정될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
- (베트남/호주) 한-베트남 FTA, 한-호주 FTA 활용도 제고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아세안) '14년 태국 정정불안과 인니 금융시장 불안으로 성장률이 5년만에 4%대까지 떨어졌으나 '15년 AEC 창설,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정치안정, FDI 유입확대 등에 힘입어 5% 성장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대양주) 중국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광물수출 증가, 건설경기 호황과 농축산물 수출 호조세로 '15년 3%대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② 산업 동향

-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는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성장에 성과를 올리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소비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간재에서 최종재 생산으로 제조업 트렌드 변화 조짐
- 호주는 자동차산업을 포기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진 반면, 싱가포르는 바이오제약, 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산업 고도화

③ 신규 정책·규제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 * 자원의존 경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25년 까지 1인당 GDP 1만5,000 달러, 세계10위 경제대국진입 목표
- 태국 인프라 개발 계획(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2015-2022)
 - * 태국 정부는 '15-'22년까지 7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중점 추진
- 필리핀 포괄적 국가개발 비전
 - * 아퀴노 정권('10-'16)은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 빈곤 감축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국가개발 비전에서 교통, 전력, 수자원 관련 인프라 확충에 역점 추진

④ 사회·문화적 변화

- 소비시장 트렌드 키워드 W.O.W. (Well-Being, Online, Woman)
 - *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관리에 관심 증가, 신 IT 즐기는 Y세대(15세~29세)가 아세안 인구전체의 27%, 도시 중산층 직장인 여성이 아세안의 소비주도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한류 프리미엄』 활용한 미래 내수시장 선점노력
- ◇ 개발수요가 많은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중점 발굴
- ◇ 동반자적 협력관계 토대 위 한국적 방식(Korean Way) 전파

세부 전략

① 『한류 프리미엄』 활용한 미래 내수시장 선점노력

- 한류 활용, 유통망 진출사업 확대
 - 소비시장 활황과 한류를 기회로 활용하여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진출사업 지원확대
 - *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 최대 활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기 성과창출 도모
 - 현재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10개)*하여 집중공략
 - * 화장품, 광학기기, 의류잡화, 가구조명, 편물, 인조섬유, 기계류, 자동차부품, 식품, 플라스틱
- 제조업 투자진출 확대를 통한 신규수출 창출
 - 현지투자 다국적 기업 공급선 신규개척 모델 개발
 - * 주요 타겟품목 :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 아세안 이전 P턴기업 지원강화
 - * 중국에서 동남아(인니,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로의 투자 이전수요 흡수
- 내수시장 타겟 서비스업 투자진출 확대
 - 식음료, 유통 프랜차이즈 진출 강화
 - * 기진출 브랜드의 확대진출 및 신규 브랜드의 현지 시장조사 지원, 현지 마스터프랜차이즈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매칭

② 개발수요가 많은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중점 발굴

- 기관별 수주협의회를 통한 유기적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
 - 기진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해군협 등 유관기관 및 KOTRA 프로젝트 수주협의회 등과 협업
- ADB, Worldbank 등 MDB(다자간개발은행) 활용 프로젝트 발굴
 - 마닐라에 MDB 프로젝트 센터 설치, 현지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정보 MAP 구축 : 교통(철도, 항만, 공항, 도로) 및 에너지(전력, 신재생)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정보 고도화를 통한 수주지원
- ODA 사업, KSP 사업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진출 기회 다각화
 - 프로젝트 설계 초기부터 우리기업 진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KSP 사업과 연계한 사전 프로젝트 정보수집 기능강화
- 중장비, 기자재 수출 확대
 - 인프라 개발사업 및 주택보급 확대사업 등 대형건설프로젝트 발주 지속에 따른 건설 중장비, 기자재 품목 수출확대

③ 동반자적 협력관계 토대 위 한국적 방식(Korean Way) 전파

- 비즈니스 연계형 CSR 추진
 - CSR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시장 선점
 - * 발주가 활발히 추진되는 분야(수처리기술, 도시설계기술 등)의 공무원에 대한 무상 교육을 통해 입찰시 수주 가능성 제고
 - 적정기술 이전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 발굴
 - *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전 및 설비제공을 통해 잠재고객 육성, 유희장비 기증사업 추진
 -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 NGO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CSR 강화

VII. 중 동

1. 중동시장 특성 및 핵심 이슈

《 중동시장 특성 》

- ◇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세 시현
 - * '12년 전세계 국부펀드의 35%(1조8,000억 달러)
 - * MENA 경제성장률 (IMF) : ('13년) 3.0% → ('14년) 3.6% → ('15년) 4.5%
- ◇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 시장
 - * '13년 전세계 프로젝트 시장의 40%(3조 2,000억 달러)
- ◇ 우리나라 최대의 에너지 수입원
 - * 한국 원유 수입량의 86%, 천연가스 수입량의 57% 차지
- ◇ 정치·경제적 불안요소 상존
 - * 정정불안 국가(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서방제재(이란)

핵심 이슈

-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지역 혼란 지속
 - * 이라크 : 북서부의 수니파 반군 ISIL의 봉기로 북동부 지역 쿠르드, 남동부의 시아파로 분할되어 내전이 진행 중
 - * 리비아 : 민병대간 수도 트리폴리 국제공항 쟁탈전을 촉매로 현재 내전 상황 중으로 주요국 공관(美, 英 등)은 기철수
- 이란, P5+1과 핵 협상 연장
 - * 이란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당초 '4.7.20일 종료 예정이었던 핵 문제 협상 기한을 '15.6.30일로 연장
 - 우라늄 농축 문제에 관해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재협상 결정
- 석유 산업의존도 탈피를 위한 산업다각화
 - * Post-Oil 시대 대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 산업 다각화 분야: 신재생, 보건·의료, ICT 등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지정학적 불안요소에도 중동지역 '15년 4.4%성장 전망
* MENA 경제성장률 전망(IMF) : ('13년) 2.7% → ('14년) 2.1% → ('15년) 4.4%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석유 산업은 정유능력 확대 노력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증가 추세
- 건설 플랜트 부문은 GCC를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 지속 발주
* (카타르) 월드컵(2022) 관련 프로젝트, (UAE) : World Expo(2020)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 제조업 분야는 이집트, 이란, 터키 등 일부 국가만이 제조업 기반 보유
* GCC의 경우 석유화학 외 산업 기반 취약
- 신재생 에너지는 집중 육성 산업으로 관련 산업의 발달이 예상됨
* (UAE) 1,000MW 규모 솔라파크 건설 추진

③ 신규 정책·규제

- 석유고갈 대비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 경제발전전략 추진
* 카타르 국가비전 2030 : 교육, 금융, 관광, ICT, 에너지 등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석유화학, 의료, 관광, 금융, ICT, 신재생에너지 등 집중 육성
- 자국산 제품 우선구매 정책
* (사우디) 국영기업 자국산 기자재 우선 구매 추진, (오만) 오일가스 부문 입찰시 오만의 제품-서비스 활용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프로젝트 입찰평가에 반영

④ 사회·문화적 변화

- 중동 청년층 실업 중장기적 사회문제로 대두
* 청년층 실업률 9%, 전체 인구의 70%가 30대 미만
- 인터넷 보급률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망
* 중동 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평균 37%이나, UAE(71%), 쿠웨이트(62%), 카타르 (61%) 등 주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률 증가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산업다각화 및 중점 육성 산업 관련 프로젝트 진출
- ◇ 국가·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품목 선정 및 수출 확대
- ◇ 전략적 이점을 활용한 투자진출 극대화

세부 전략

① 산업다각화 및 중점 육성 산업 관련 프로젝트 진출

- 산유국 산업다각화 정책에 부응하는 관련 프로젝트 진출 및 기자재 수출 확대
 - * GCC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Post Oil 대비 교육, 의료·보건, ICT 등 산업다각화 정책 실시
 - (의료) (쿠웨이트) 70억 달러 규모 9개 국립병원 증축 프로젝트
 - (교육) (UAE) 교육 부문 예산에 27억 달러 배정
-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점 육성산업 프로젝트 공략
 - * 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 (사우디) Long Term Strategy 2024, (오만) Vision 2020, (UAE) Abu Dhabi 2030, Dubai Strategy Plan 2015
 - * 중점 육성 분야 : 석유화학, 인프라(항만, 공항, 철도), 신재생에너지, 원전, 발전담수 등

② 국가·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품목 선정 및 수출 확대

- 경제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권역별 전략 품목 선정을 통한 수출 확대
 - * 주력시장 (GCC, 터키, 이스라엘) : 건자재, 제조설비, 프렌차이즈 등
 - * 기회시장 (이라크) : 건자재, 자동차, 생활소비재 등
 - * 전략시장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이란, 예멘) : 생활소비재, 가전,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등
- 소비 계층별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 * (GCC 산유국 부유층 및 중산층) 가처분소득 증가 및 중산층 확대 추세로 고급 소비재 수요 증가⇒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 고가 시장 진출 강화
- * (중산층) 지속적인 인구증가, 소득 증가로 의류 및 의복용 섬유직물, 장신구 등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 * (외국인 근로자 및 저소득층) 생활용품 등 중저가 소비재 수요 발굴 필요

③ 전략적 투자진출 방안 모색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투자진출 극대화

- * (UAE) 중동 물류 허브인 UAE내 자유무역지대(FEZ) 활용 중동·아프리카로 재수출 전진 기지 마련
- 외국인지분 100% 인정, 법인세 면세(50년간), 개인소득세 없음

○ 국가별 투자유치 중점 분야 공략

- * (사우디)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한 외국기업 대상 인센티브 적극 제공
- 상공부 산하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Industrial City 입주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 제공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제조업 투자액의 50%~75%까지 외국투자기업 대상 장기 융자

○ 현지 정부 금융지원 정책 적극 활용

- * (사우디) 사우디 산업개발기금, 공공투자펀드 등 제조업 육성 자금 장기융자 정책을 활용한 투자 진출지원

Ⅷ. 중남미

1. 중남미시장 특성 및 핵심 이슈

《 중남미시장 특성 》

- ◇ GDP 6조, 인구 6억의 거대시장
 - * 브라질(2.2조, 2억명), 멕시코(1.3조, 1.2억명)를 비롯한 7개국이 주도
- ◇ 우리나라의 제 3위 흑자 시장
 - * '13년 아시아 1,035억 달러, 북미 210억 달러, 중남미 180억 달러
- ◇ 지속성장하는 기회의 시장
 - * 최근 10년 간 중남미 평균 GDP 성장 3.4%로 세계 평균 상회
- ◇ 부유해지는 젊은 인구
 - * 중남미 인구는 중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음

핵심 이슈

- 제조경쟁력 강화로 세계의 생산기지로 급부상
 - * '00년-'11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 중국 15.95%, 멕시코 3.04%
 - * 브라질의 경우 내수용 제조업, 멕시코의 경우 재수출을 위한 제조업 발달
- 중남미 자본의 다국적기업 Multi-Latinas의 등장
 - * Multi-Latinas의 기준 : 연간 매출 5억 달러 이상으로 중남미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
 - * 정보통신, 에너지, 유통, 항공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개발수요 다대
 - * 브라질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멕시코 국가인프라개발 프로그램(PNI) 등
-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로 쿠바 내수 시장 개방 예상
 - * 미국에서 발표할 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에 주목 필요
- 역내 지역협력 체재를 활용한 현지진출 유망
 - 멕시코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NAFTA)
 - 파라과이를 통한 남미공동시장 진출(MERCOSUR)
 - * 파라과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유일하게 개방경제 지향
 - 쿠바를 활용한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 진출
 - * ALBA: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등이 회원국이며 11개 중남미 군소국가로 구성된 미개척 시장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1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선진국의 더딘 회복과 원자재 수요 둔화로 성장세는 높지 않을 전망
 - * 현지화 가치하락 및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역성장 예상
 - * 중남미 전체 평균 1.3%, 세계 평균 3.3%
- '15년 중남미의 상품·서비스 분야는 수출 4.2%, 수입 3.7% 성장 예상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로 프로젝트 발주 증가 추세
 - * '10년-'15년 연평균 7% 성장이 예상되며 오일·가스, 발전 플랜트 분야의 성장 전망
 - *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개혁으로 석유분야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 분야의 민간 투자 증가 기대
- 자동차 및 가전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꾸준한 성장

③ 신규 정책 · 규제

-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개방적인 통상정책 추구 VS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증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 정책 시행(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등)

④ 사회·문화적 변화

- 거대 인구 및 지속성장에 바탕한 중산층 성장
- 소득수준 향상으로 각종 미용 및 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
-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 *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은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제품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지배적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흑자시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 ◇ 역내 지역협력 트렌드를 활용한 무역투자진출 활성화
- ◇ 중남미 각국 우선순위에 따른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 ◇ 투자진출 목적에 따른 전략국가 선정

세부 전략

① 흑자시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 교역전략품목 위주로 선택과 집중
 - 전자기기, 광학기기, 의료용품, 알루미늄 및 제품, 유기 화학품, 고무 및 그 제품, 공구, 금고, 인조섬유, 플라스틱
 - *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해당제품 시장성장률 및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선정
- 중산층 확대에 발생하는 고급 소비재 수요 대응
 - 의료분야, 미용, 웰빙 상품 등에 수요 집중
 - 의료인증등록, 현지 유통망 진출(남미: 토종기업 vs 중미: 외투기업) 필요
 - * 남미에서는 칠레 Cencosud 및 Falabella, 중미에서는 Walmart와 같은 미국기업 강세
- 한류붐을 활용한 문화-상품 수출융복합 사업 추진

② 역내 지역협력 트렌드를 활용한 무역투자진출 활성화

- 미국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관련 전시회를 공략,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FIME) 등
- 역내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공동체별 수출 마케팅 필요
 -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 FTA 및 경제블록을 활용한 시장 진출
 - 개방 경제를 추구하는 파라과이를 통한 남미시장 접근(MERCOSUR)
 - 멕시코를 통한 북미시장 진출(NAFTA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 쿠바를 활용한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 진출
 - 칠레·페루·멕시코 등 FTA 허브국가를 활용한 FTA미체결국가 진출
 - * FTA경제영토비중 : 칠레 85%, 페루 78%, 멕시코 64%, 한국 56%

③ 중남미 각국 우선순위에 따른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 국가별 개발계획에 따른 국가전략분야 공략
 - 중남미 국가들은 지속성장을 위해 전력, 에너지, 도로, 통신 등 우선순위에 따른 국가별 개발계획을 운영
 - * 멕시코: 에너지, 도시발전, 브라질: 정보통신, 콜롬비아: 주택, 상하수도, 칠레: 신재생에너지 등
- 중남미 국가들이 선호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집중 공략
 -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남미공동시장개발기금(FOCEM)등 중남미 관련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 * 중남미 정부 부족한 재원으로 사업자가 예산을 부담하는 PPP형식 선호
 - * CAF의 경우 IDB보다 소규모 파이낸싱에 적합하며 소요기간도 적은 편
 - 중남미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스페인) 및 Multi-Latinas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 및 진출국 주요인사 네트워킹
 - * 우리기업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가 미약해 컨소시엄 구축 필수

④ 투자진출 유형에 따른 전략국가 선정

- 자원개발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 * 유전, 광물, 임산물, 수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가능
- 시장확보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
 - * 중산층증가에 따라 내수소비시장 규모가 크고 지속성장중인 국가
- 효율성추구 : 멕시코, 중미 등
 - *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생산비용을 최소화하여 미국에 상품 수출

IX. CIS

1. CIS시장 특성 및 핵심 이슈

《 CIS시장 특성 》

- ◇ 러시아 비중이 절대적인 CIS 경제
 - * CIS전체 GDP의 76.5%, 수출의 72.2%, 수입의 71.4%, 투자유치의 74%(‘12년 기준)를 러시아가 차지
- ◇ 세계 최대 자원 보유지로 자원 의존형 경제
 - * 세계 지하자원의 25%가 매장되어있음: 가스(35%), 석유(24%), 석탄(22%)
 - * 러시아, 국제유가 10% 하락시, GDP 1.4% 하락(S&P사 ‘12. 5월)
- ◇ 한국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 수출확대 가능 시장
 - * 삼성, 러시아인의 선호 브랜드 순위 3년 연속 선두(OMI, 연례조사)
 - * 현대·기아차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14.12월)
-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 잠재력 보유
 - * 태평양, 북극해, 발트해, 흑해, 카스피해 등 해상루트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보유

핵심 이슈

-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 위기로 對CIS 수출환경 악화
 - *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유가하락 등으로 ‘15까지 경제성장률 0% 예상, 여타 CIS국가들도 5% 미만 예상
 - *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對러수출 환경 및 현지 진출기업들의 영업환경 악화(‘14년 한 해 동안 44% 가치하락)
-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출범, WTO가입 등 통상환경 변화
 - * ‘15.1.1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리루스 중심으로 EEU출범, 연내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추가 가입예정
 - * CIS 12개국 중 WTO가입국 러시아 등 7개국, 추진국가 2개국(카자흐스탄, 벨리루스)
- 플랜트, 인프라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 발주
 - * 러시아 경제개발부 ‘13-’15, 도로 항만 등 대형 인프라 48개, 3,200억 달러 투자 계획
 - * 카자흐 Healthy Kazakhstan Program 추진, ‘15년까지 26억 달러 투자 계획
 - * 우즈벡 산업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15년까지 50억 달러 투자 계획
- 정부주도 제조업 육성 추진 활발
 - * 자원의존 경제의 한계 절감, ‘00년 후반부터 CIS 주요국 제조업 육성 정책 본격추진
(예: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단지 등)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러서방 간 긴장관계지속, 유가하락으로 CIS 주요국 '14년 '15년 경기 부진예상
 - * IMF 경제성장률 예상, 러시아('14년 0.24%, '15년 0.51%), 우크라이나(-6.5%, 1.0%), 벨라루스(0.94%, 1.48%)
- 러시아를 중심으로 환율급변, 물가상승, 자본유출, 소비위축 등 경기 불안 지속
 - * 러시아, 물가상승 '14년 12월 전년동월대비 12%, 자본해외유출'14년 1,200억 달러, 소비증가율 '14년 0.6%, 우크라, 카자흐 '14년 소비증가율 각각 -7%, 2.8%
-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17%로 대폭 인상으로 대응
 - * 2014년 들어 6번째 인상 조치, 연초 5.5%에서 10.5% 상승으로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최대 인상폭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석유가스) CIS 최대 산업인 석유가스 산업이 '14년 들어 주춤
 - * 러시아 석유 수출 4.9%감소, 가스수출 2.7%감소('14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 (자동차 등) 소비심리로 판매량 급감, 생산량 조정, 일부 기업은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
 - * 러시아 '14 신차 판매 감소 -12%, 현지 BMW, iPhone 등은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

③ 신규 정책 · 규제

- CIS 주요국, 제조업 중심 경제 현대화 발전전략 추진

[CIS주요국 산업발전 추진 현황]

국 가	내 용
러시아	· 5대 핵심산업(의료, IT, 우주항공, 에너지, 원자력) 선정 개발 계획 수립 · 공공조달 국산품 우대, 국내산 자동차 부품 사용 의무화 등
카자흐스탄	· 非자원분야 투자에 관한 정부금융 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 정부지원 7대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금속가공 등) 중점지원
아제르바이잔	· 탈석유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위해 농수산물 가공업(목화, 포도, 철갑상어) · 경공업(신발 등) 및 전기·전자 부분 발전 모색

④ 통상환경 변화

-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출범으로 CIS 경제 블록화 진행
 - * '18년 통합의약품 시장, '19년 통합전력시장 조성 계획
 - * '25년까지 통합금융규제기관 신설, 단일 거시경제정책 및 외환·금융정책 실시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시장 특성에 따른 권역별 차별화 진출
- ◇ 각국 산업개발정책 및 제도 적극 활용
- ◇ EEU 등 통상환경 변화 활용

세부 전략

① 시장 특성에 따른 권역별 차별화 진출

- 시장 특성에 따라 성숙시장(러시아, 카자흐), 개방시장(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 관리시장(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권역을 구분, 차별화된 접근

접근전략: 유라시아 구상을 활용한 지방상권 개척 및 프로젝트 수주			
지역	성숙시장권역 (러시아, 카자흐스탄)	개방시장권역(미성숙)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	관리시장권역(미성숙)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특성	자원/인구풍부, WTO가입 1인당 GNI 1만 달러 이상 對CIS수출/투자: 75% 82%	자원/인구빈약, WTO가입 1인당 GNI 1만 달러 이하 對CIS수출/투자: 9%/4.5%	자원풍부, 인구빈약, (WTO가입) 1인당 GNI 1만 달러 이하 對CIS수출/투자: 16%/11.5%
접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전략상품 발굴 ◆ 미개척 지방시장 진출강화 ◆ 제조업 육성정책 대응 ◆ 러, 극동개발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EEU 진출 전략기화 - EU: 조지아 - EEU: 벨라루스, 키르기스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적극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금 활용 프로젝트 수행 ◆ 터키, 러 등 제3국 파트너 발굴 ◆ 탈석유화, 산업다각화 대응

② 각국 산업개발정책 및 제도 적극 활용

- 정부 육성 산업 관련 유망품목 발굴

* 예: 가스차량/충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태양광·풍력에너지 및 각종 에너지 효율제품

- 공공 및 민간 조달시장 공략
 - 성장추세인 정부조달시장 및 현지 리스기업을 통한 민간조달시장(B2B) 공략
 - 공공 조달 입찰시 자국산 보호주의 강화에 맞춰 투자진출 및 현지기업과 협력
- 정부발주 지역 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유라시아 진출 협의회, 대내외 협력 로드쇼를 활용하여 현지‘수요창출형’ ‘수요대응형’프로젝트 적극 발굴 및 참여
 - 중소 EPC 시장 개척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 * 러시아, 터키, 유럽, 일본 EPC업체, 금융기업 등
 - ADB, EBRD, 루스나노 등 국제개발금융 및 현지 펀드를 활용한 참여

③ EEU 등 통상환경 변화 활용

- EEU 경제권에 공통으로 진출 가능한 상품 발굴
 - 문화와 취향이 유사하고, 공통인증사용 등 단일 경제권이라는 점을 이용, 공통진출 품목 발굴 *예: 화장품, 난방제품 등
- 역내 무관세, 통관절차 철폐 등 EEU를 활용한 투자진출 활성화
 - 역내 생산 법인 설립 및 물류 유통망 확보
- 한-EEU FTA 체결 추진으로 對EEU 수출확대 기회 모색
 - * 러시아 등 EEU국가들은 非CIS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 중이며 비공식적으로는 이집트, 터키, 베트남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비서구권 지역인 중동,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X. 아프리카

1. 아프리카시장 특성 및 핵심 이슈

《 아프리카시장 특성 》

- ◇ (경제성장) '01년 이후 연간 5-6% 성장률, 세계경제 신성장엔진
* '11-'15년간 고속성장 10개국 중 아프리카 7개국 포함(평균 성장률 7-8%)
- ◇ (성장잠재력) 타 신흥경제권 대비 높은 젊은층 비중
* '10년 24세 미만 인구 1억2,000만명(전체인구 비중 60.1%) '50년 24세 미만 인구 약 2억명
- ◇ (풍부한 자원) 원유·천연가스·광물자원 보유, 미개발 자원도 풍부
* '12년 세계 원유 생산량 12.3%, 천연가스 생산량 6.5% 차지, 귀금속 및 희소금속 다량 보유
- ◇ (글로벌 생산기지) 낮은 임금, 관세혜택, 내수시장 성장 등 장점
* 아프리카 법정 연간 최저임금, 아시아의 1/3 수준, 선진국 관세 혜택, 중산층 확대
- ◇ 우리나라 대기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시장
* '13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 8,233개사 중 대기기업 153개사(3%) 수출액 72.3억 달러(64.5% 점유)

핵심 이슈

- 역내 경제통합, 거대 단일경제권 출범
* '14.12월 Tripartite FTA 시행. 세 개 지역경제공동체(EAC-SADC-COMESA)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26개국 6억2,500만명 인구 보유 단일경제권 출범
- 소비시장 성장
* '13년 소비 규모 6,000억 달러 ('13년 미국 소비규모: 14조 달러)→ '20년 1조 달러 초과 전망
- 인프라 확충으로 프로젝트 투자 증가
* MDB 및 PPP 활용 대규모 국별·국가간 인프라(전력·ICT·도로·철도·수자원) 투자 증가, '20년까지 933억 달러 소요 예상
- 제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진입 노력, 경공업·중화학 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 유가하락에 따른 자원부국 환율불안 및 정부재정 위기
* 나이지리아·앙골라 등 원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90% 이상 차지. 저유가에 따른 정부재정 위기

2. 기업 진출여건 분석

① 거시 경제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년 경제성장률 5.5% 전망(세계경제: 3.2%)
 - * 자원부국의 원자재 수출 및 인프라 투자, 저소득국의 제조업 개발이 주요 성장 동인
- 수출입 성장률 세계평균의 2배, 글로벌시장 비중 확대
 - * 유럽 등 전통 교역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 감소를 중국·중동·역내 아프리카 등 신흥국 수출로 만회, 연 10% 상회하는 고성장 지속

② 주요 산업별 동향

- (산업구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육성 필요
 - * 전체 GDP에서 제조업 비중 10-15% 차지. 세계 제조업에서 아프리카의 비중 1% 수준
- (광업) 원자재 가격 하락 불구, 아프리카 경제의 기반 역할
 - * '13년 광업의 아프리카 전체 GDP 기여도는 12.7% ('06년 14.1% 대비 다소 하락)
- (농업) GDP의 25%, 고용의 70% 차지
 - * 글로벌기업 및 사모펀드들의 농업 분야 투자 진출 확대
- (금융) 금융서비스·식품가공·건설·의약 등의 제조업 M&A 증가
 - * '14.1-11월 M&A 건수 631건, 총규모 340억 달러 기록
- (기타) 소매업, 의약·의료 산업 발전 가속화
 - * '13년 소매업 시장규모 117억 달러, 의약·의료 시장규모 117억 달러

③ 신규 정책 · 규제

- 대륙, 지역, 국가 차원의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 추진

저소득국	중소득국	경제공동체
· 광업 및 농업 중심에서 식품, 섬유 등 경공업으로 구조개혁 추진	· 남부 아프리카 국가,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가 수반된 제조업 육성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진입 노력	· EAC, SADC, ECOWAS, COMESA* 등은 경제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공통적인 산업정책 입안

* EAC(동부아프리카공동체),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3. 전략 방향 및 세부 전략

전략 방향

- ◇ 경제권역별 진출 전략 차별화
- ◇ 10대 전략품목 수출 역량 집중
- ◇ MDB·개발금융 재원 활용 투자형 프로젝트 진출 확대
- ◇ M&A 및 합작투자(J/V)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및 진출 리스크 경감
- ◇ 신성장산업 니치마켓 진출 발굴
 - * 신재생에너지, 의약/의료기기 등
- ◇ 지역경제공동체와의 FTA 협상 준비

세부 전략

① 경제권역별 유망분야 진출 차별화 전략

- (대륙선도국) 경제수준과 산업화 정도가 높은 국가들로 SOC, IT 프로젝트 진출 및 상품수출 주력
 - *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
- (자원부국) 자원수출자금은 풍부하나 산업화가 미진한 국가들로 SOC 프로젝트 진출
 - * 나이지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등
- (초기산업국) 경제력에 비해 산업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로 차세대 제조기지로 활용 가능
 - *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등
- (저개발국) 경제력과 산업화 정도가 모두 낮아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원조 등 상호협력기반 구축
 - * 르완다, DR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② 10대 전략품목 수출 역량 집중

- 제조업 성장으로 기계류 등 중소형플랜트 및 플라스틱 유망, 소비시장 성장으로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생활용품 수출 유망

* 남아공(24%), 나이지리아(14%), 앙골라(11%), 라이베리아(31%, 선박 4개국)이 전체 아프리카 수출 80% 차지

③ MDB·개발금융 재원 활용 투자형 프로젝트 진출 확대

- 재원조달 다양화로 재원확보 후 프로젝트 先제안, 발주·수주까지 지원
- 투자기관(MDB·DFI·IB·현지은행)*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MDB(다자개발은행), DFI(개발금융기구), IB(투자은행)

④ M&A 및 합작투자(J/V)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및 진출 리스크 경감

- 중소·중견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현지화 정착을 위해 M&A 및 현지파트너와의 J/V를 통한 투자진출 확대

* 아프리카 현지에서 제조하여 유럽 및 미국 수출시, 관세 혜택 부여

⑤ 신성장산업 니치마켓 진출 발굴

- 동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지열·풍력)를 활용한 전력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

* IPP(민자발전사업)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 활성화로 투자사업 진출 유망

- 의약품·의료기기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비교우위 분야 수출

* 고령층 인구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의료부분 및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

⑥ 지역경제공동체와의 FTA 체결 검토

- 보호무역주의가 강한 아프리카 지역의 역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 증가 효과 극대화

* 아프리카는 '17년까지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출범, '30년까지 African Common Market 출범, '34년까지 Monetary and Economic Union 출범 예정

권역별 주요국 경제지표

중국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국		10,355,350	12,893	1,367,520	132,137	-0.6	81,461	7.2	2,030,381	-42.8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일본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일본		4,769,804	37,683	127,061	29,831	-6.8	49,313	-10.7	360,631	-42.2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북미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북미 (2)	미국	17,416,253	54,678	318,523	64,089	12.6	41,408	9.7	3,524,718	-19.4
	캐나다	1,793,797	44,519	35,467	4,493	-5.7	5,085	16.4	836,546	208.2
총계		19,210,050		353,990	68,582	11.2	46,493	10.4	4,361,264	-6.1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유럽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유럽 (29)	독일	3,820,460	44,741	80,940	7,050	-3.7	19,333	9.3	76,745	9.6
	프랑스	2,902,330	40,445	63,951	2,451	-25.3	6,161	10.6	66,824	71.1
	영국	2,847,600	37,744	64,511	5,331	22.4	6,912	29.6	203,021	-58.1
	이탈리아	2,129,280	34,455	59,960	3,192	12	5,732	17.3	42,756	322.8
	스페인	1,400,480	32,975	46,507	1,844	20.8	2,609	87.9	28,501	-51.8
	네덜란드	880,394	47,365	16,850	5,004	-0.9	4,037	8.3	392,411	-70.9
	스위스	679,028	55,237	8,051	287	-66.3	2,543	2.3	13,871	-74.2
	스웨덴	559,113	44,695	9,714	815	6.1	1,620	14.1	5,829	1651.5
	폴란드	552,230	24,429	38,537	3,517	5.7	705	1.8	9,236	-22.5
	벨기에	527,810	41,741	11,191	2,268	9.4	1,590	11.9	166,362	2770.9
	오스트리아	436,069	45,411	8,520	861	51.6	1,214	-1.9	3,585	-
	덴마크	347,196	44,325	5,610	1,986	87.5	914	14.5	24,807	-42.8
	핀란드	276,275	40,455	5,476	317	-3.2	1,227	4.7	3,347	83286.4
	그리스	246,397	25,753	11,040	969	18.6	383	54.4	410	89.2
	아일랜드	245,820	46,770	4,805	435	62.7	818	11.6	1,602	-98.5
	포르투갈	228,168	26,307	10,492	402	32.2	166	-12	-	-
	루마니아	202,467	19,397	19,926	553	37.9	570	-15.1	53,689	-
	체코	200,008	28,446	10,535	1,569	0.9	498	-3.3	2,763	-97.7
	헝가리	129,687	24,336	9,859	1,419	-30.4	471	10.7	371	-99.1
	슬로바키아	100,110	27,665	5,417	3,944	-4.1	205	21.6	3,790	-72.5
	룩셈부르크	63,926	92,507	548	571	49.2	36	-12	226,894	333.6
	크로아티아	58,325	20,392	4,281	91	112.2	14	1.1	404	-
	불가리아	55,084	17,115	7,202	109	-0.5	185	21.2	-	-
	슬로베니아	49,927	29,359	2,062	1,527	18.3	115	37.2	-	-
	리투아니아	48,722	26,700	2,957	192	43.4	46	23	-	-
	라트비아	32,815	23,904	2,033	103	2	52	44.5	-	-
	에스토니아	26,363	26,555	1,333	117	-15.1	333	170.5	-	-
	키프로스	21,343	27,986	891	30	-53.7	168	-87.1	-	-
	몰타	10,260	31,717	422	980	34.1	508	-33.9	-	-
총계		19,077,687		513,621	47,934	4.6	59,165	10.9	1,327,218	-46.8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서남아시아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서 남 아 시 아 (8)	인도	1,995,776	4,307	1,259,695	11,655	11.6	5,001	-12.8	278,684	8.58
	네팔	18,166	1,576	28,364	18	22.3	1.8	25.2	5,353	-40.8
	파키스탄	241,411	3,231	186,289	703	-6.2	364	-19.3	33,559	543.1
	아프가니스탄	21,747	1,178	31,280	53	-10.8	0.028	-78.9	0	-
	방글라데시	160,298	2,216	157,918	1,138	-15.4	316	2.4	3,784	-51.4
	부탄	2,037	6,864	746	2	-24.1	0.02	-94.8	-	-
	스리랑카	70,966	7,047	20,964	288	5.3	86	9.1	758	-26.3
	몰디브	2,532	9,543	342	3	8.19	1.4	274.3	-	-
총계		2,512,933		1,685,598	13,860	7.5	5,769	-12.3	322,138	15.1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대양주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대 양 주	호주	1,435,830	44,346	23,485	9,398	7.1	18,809	-0.3	1,279,618	-36
	뉴질랜드	196,217	31,692	4,518	1,620	18.1	1,408	9.4	63,780	62.8
총계		1,936,152		33,476	11,018	8.6	20,217	0.3	1,343,398	-34.1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동남아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아 세 안 7	인도네시아	859,339	5,499	251,490	10,639	0.3	11,316	-5.8	404,056	22.7
	말레이시아	343,009	18,639	30,124	6,931	-12	10,021	0.1	125,064	-67.4
	태국	373,627	10,227	68,554	6,988	-6.7	4,874	0.6	108,172	20.5
	필리핀	291,799	4,962	99,434	9,290	15.1	3,085	-11.1	82,396	-81
	베트남	187,837	4,257	90,630	20,254	5.1	7,334	11.7	1,151,921	40.5
	브루나이	16,845	56,287	412	278	202.1	1,178	-29	229	-85
	싱가포르	304,105	67,035	5,473	22,536	7.6	10,404	8.7	775,525	102
소계		2,376,561		546,117	76,916	3.5	48,212	0.2	2,647,363	8.5
C L M	캄보디아	16,927	2,777	15,561	593	7.4	180	42.9	46,880	-28
	라오스	10,814	3,285	6,901	143	-13.3	17	42	16,597	-44.8
	미얀마	60,294	1,867	66,231	683	4.9	545	21.1	244,210	-37
소계		88,035		88,693	1,419	3.7	742	26.2	307,687	-36.3
총계		2,464,596		634,810	78,335	3.5	48,954	0.5	2,955,050	1.1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중동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중동 (14)	이란	405,540	12,478	78,089	3,734	-9.9	4,311	-15.9	-	-
	이라크	248,333	7,703	35,871	1,565	-12.6	6,049	-29.3	151,642	-6.2
	시리아	-	-	-	371	-5.4	1	-10.2	-	-
	사우디아라비아	772,610	32,340	30,624	7,490	-6.9	34,539	0.7	467,573	159.7
	쿠웨이트	185,300	40,223	3,999	1,867	88.2	15,926	-7.8	735	(13 투자액 없음)
	카타르	213,784	96,993	2,212	815	2.6	23,521	-2.0	2,591	-11.4
	바레인	33,494	36,039	1,198	252	21.7	598	15.0	0	0
	UAE	412,350	30,985	9,302	6,632	28.4	14,862	-9.8	33,428	40.6
	오만	82,254	30,325	3,288	1,031	13.4	4,153	-6.1	48,234	22.9
	예멘	43,180	2,399	27,460	306	91.3	2,121	41.4	-	-
	레바논	45,489	15,078	4,510	277	-16.8	25	-59.6	-	-
	요르단	36,523	6,281	6,694	1,295	9.9	72	20.0	400	596.8
	이스라엘	305,707	35,659	8,044	1,115	-17.9	857	9.8	230	(13 투자액 없음)
	터키	767,066	15,767	77,324	6,067	18.6	604	-3.4	106,635	5.3
	소계	3,551,630		288,615	32,817	7.3	107,639	-5.3	811,468	59.5
북아 프리카 (5)	이집트	286,112	6,696	85,833	2,139	55.3	505	-42.5	9,500	275.8
	리비아	58,645	10,605	6,213	842	-11.8	737	70.6	1,891	-4.5
	튀니지	46,736	10,253	11,060	197	37.8	118	-44.6	0	0
	알제리	219,453	7,816	38,700	1,329	38.3	1,834	119.9	513	-64.6
	모로코	114,731	5,699	33,179	267	2.3	227	118.3	34,262	8,465.4
	소계	725,677		174,985	4,774	29.1	3,421	39.0	46,166	626.1
	총계	4,277,307		463,600	37,591	9.7	111,060	-4.4	857,634	66.5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중남미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평양 동맹 (4)	멕시코	1,295,860	17,925	119,581	10,033	17.6	2,938	39.8	620,818	27
	콜롬비아	400,117	13,458	47,666	1,391	17.4	511	164.4	14,883	-75
	페루	208,818	11,988	31,424	1,251	-4.8	1,245	-33.8	311,449	107
	칠레	264,095	23,165	17,711	1,884	-15.7	4,478	5.4	39,319	32
소계		2,168,890		216,382	14,559		9,172		986,469	35
남미 공동 시장 (5)	브라질	2,244,130	15,153	202,768	8,214	-7.4	4,453	-12.8	428,836	-13
	아르헨티나	536,155	22,101	41,961	691	-31.4	460	-60.4	0	-100
	우루과이	55,597	20,497	3,404	221	-40.9	65	-44.3	882	0
	파라과이	31,301	8,385	6,901	197	8.4	72	-2.7	323	-72
	베네수엘라	209,226	17,917	30,457	207	-50.6	15	-70.8	200	567
소계		3,076,409		285,491	9,530		5,065		430,241	-13
기타 (24)	앤티가바부다	1,236	22,507	880	6	-83.8	0	-98.9	-	-
	바하마	8,649	25,081	360	764	-24.4	11	37.9	0	-
	바르바도스	4,277	16,153	279	13	24.2	0	-56.8	-	-
	볼리비아	34,083	6,222	11,246	112	155.9	265	-8.5	10	-50
	벨리즈	1,666	8,147	357	5	-11.8	1	62.5	-	-
	도미니카 공화국	514	10,696	710	5	43.7	0	-84.1	-	-
	에콰도르	62,484	12,803	10,602	198	20.2	120	21.2	-	-
	에콰도르	100,485	11,352	16,027	715	-16.8	338	650.0	1,502	31
	과테말라	58,298	7,476	15,870	283	-23.3	298	98.1	36	-95
	니카라과	11,847	4,797	6,223	169	-0.5	21	-4.6	0	-
	가이아나	3,142	6,904	796	22	-13.5	1	8.7	-	-
	엘살바도르	25,142	8,014	6,352	127	-5.9	57	261.7	0	-
	코스타리카	50,461	14,914	4,775	221	6.9	272	11.7	0	-100
	온두라스	19,372	4,712	8,264	104	-6.3	50	-6.6	-	-
	그레나다	839	11,767	106	3	25.7	0	2,183.8	-	-
	쿠바	82,156	11,166	11,200	51	2.8	7	3.1	0	-
	아이티	8,919	1,771	10,461	35	28.4	2	-80.1	2,000	-85
	파나마	44,694	20,316	3,788	2,268	-34.3	478	-7.0	217,022	65
	자메이카	13,921	8,672	2,799	21	-8.3	10	118.4	-	-
	수리남	5,273	16,716	553	10	-44.0	2	-0.2	-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745	10,904	110	1	34.7	0	-99.8	-	-
	세인트 키츠 네비스	812	20,459	60	3	-3.6	0	-73.6	-	-
	세인트 루시아	1,345	11,140	170	4	109.9	0	-80.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29,629	31,264	1,351	100	14.6	174	-53.0	-	-
소계		569,989		113,339	5,240		2,107		220,570	48
총계		5,815,288		615,212	29,329	-5.1	16,334	-2.6	1,637,280	19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CIS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CIS (13)	러시아	2,057,301	24,764	143,700	9,655	-3.5	14,638	-0.3	74,133	16.8
	몰도바	7,744	4,829	3,559	9	4.0	17	10.7	-	-
	벨라루스	77,171	18,177	9,417	37	-1.5	42	-6.2	14,234	(*13년 투자액 없음)
	아르메니아	11,111	7,364	3,294	14	-1.4	3	-5.5	-	-
	아제르바이잔	77,913	17,943	9,383	249	-1.8	0	-8.7	213	31.4
	우즈베키스탄	63,079	5,564	30,604	1,881	-3.5	25	-5.4	11,947	27.6
	우크라이나	134,885	8,240	45,282	312	-5.7	674	-9.3	-	-
	조지아	16,125	7,665	4,470	133	8.2	7	2.9	-	-
	카자흐스탄	225,619	24,143	17,422	821	2.4	554	23.1	85,785	37.6
	키르기스탄	7,647	3,384	5,700	148	-2.5	8	-6.8	1,643	-52.2
	타지키스탄	9,156	2,676	8,302	45	3.0	1	-	-	-
	투르크메니스탄	47,542	14,174	5,796	185	-1.2	0	-11.3	0	0
몽골	11,725	10,156	2,925	329	2.9	20	10.4	23,434	-31.8	
총계		2,747,032		289,868	13,832	-14.1	16,003	29.7	211,403	15.8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

아프리카 국별 경제지표 및 한국과의 교역 현황 [2014년12월 기준]

구분	국가	GDP (US백만\$) *14추정치	1인당 GDP, PPP 기준 (US\$) *14 추정치	인구 (천명) *14추정치	한국의 수출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수입액 (US백만\$, %) *14.1-11월		한국의 투자액 (US천\$, % *14.1-9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 비 증감률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남부 아프 리카 (12)	남아프리카공화국	341,216	12,722	53,699	1,341	-33.6	1,486	-7.1	1,983	-2.3
	앙골라	131,407	8,186	21,444	960	-20.6	148	11.0	-	-
	잠비아	25,611	4,113	15,021	25	1.5	334	36.6	-	-
	보츠와나	16,304	15,982	2,104	9	61.7	21	6075.2	-	-
	모잠비크	1,659	1,123	26,491	89	9.2	29	99.6	6,062	-31.9
	짐바브웨	13,739	2,027	13,261	24	1.3	4	-54.2	-	-
	모리셔스	1,272	17,888	1,309	45	2.7	5	-13.8	490	180.0
	마다가스카르	11,188	1,429	23,537	22	-81.7	114	68.9	75,426	-21.0
	나미비아	11,982	10,764	2,192	7	48.5	107	206.7	-	-
	말라위	4,408	781	17,604	13	-24.0	10	-77.1	-	-
스와질란드	3,842	7,844	1,106	5	40.3	15	-53.0	-	-	
레소토	2,458	2,925	1,911	0.053	-84.5	0.0004	-98.4	-	-	
소계		565,086		179,679	2,540		2,273		83,961	-22.9
동부 아프 리카 (10)	케냐	62,722	3,138	42,927	283	16.6	25	-6.3	851	39.1
	수단	7,003	4,522	35,276	132	-13.7	29	-76.3	-	-
	에티오피아	49,857	1,533	90,982	126	51.6	51	114.6	1,803	-
	탄자니아	3,662	1,941	47,665	322	147.1	36	-12.0	20	(*13 투자액 없음)
	남수단	11,893	2,047	11,384	0.332	-	0.0001	-	-	-
	에리트레아	387	1,202	6,537	15	100.8	20	424767.4	-	-
	세이셸	1,473	24,523	94	21	5.4	3	32.1	50	(*13 투자액 없음)
	지부티	1,582	3,043	939	52	-9.8	0.127	2197.4	-	-
코모로	722	1,674	724	0.08	-82.6	0.05	25.6	-	-	
소말리아	-	-	-	4	117.7	0.431	0.0	-	-	
소계		139,301		236,528	955		165		2,724	345.1
서부 아프 리카 (22)	나이지리아	594,257	6,082	173,938	1,226	-17.5	2,587	27.0	95,600	6247.9
	가나	35,475	4,173	26,216	195	-40.9	31	-14.4	0	-100.0
	코트디부아르	33,963	2,902	24,791	205	62.6	7	358.1	20	-98.6
	카메룬	32,163	2,982	22,544	43	4.8	4	-48.3	100	-87.8
	가봉	20,675	21,620	1,586	16	-32.0	599	201.3	-	-
	세네갈	15,881	2,316	1,454	119	71.7	51	-11.1	2	-
	차드	15,841	2,645	11,284	1	0.0	0.0002	-58.6	-	-
	적도기니	15,396	32,557	778	2	-86.6	110	0.4	16,295	1773.0
	콩고	14,114	6,572	4,274	52	4.2	320	4347.3	0	-100.0
	부르키나파소	13,382	1,726	17,429	21	-18.9	6	863.0	-	-
	말리	12,043	1,559	17,379	11	-64.0	0.143	123.3	213	-49.4
	베냉	9,237	1,874	10,592	59	57.5	4	-59.1	-	-
	기니	677	1,343	11,403	37	-23.9	739	504.4	-	-
	니제르	829	1,032	17,116	5	44.9	2	2277.1	-	-
	시에라리온	5,411	2,069	6,232	16	71.0	15	293.9	-	-
	토고	4,838	1,455	6,998	22	-19.7	27	58.5	-	-
	모리타니	4,286	3,379	3,804	11	4.90	17	1.30	-	-
	라이베리아	2,073	901	4,187	2,608	-14.5	9	37.7	-	-
	카보베르데	1,975	6,339	518	1	7.5	0.0001	-99.9	-	-
	기니비사우	104	1,440	1,738	0.146	-11.9	0.272	522775.0	-	-
감비아	918	1,745	1,927	3	38.7	0.184	468.5	-	-	
상투메 프린시페	362	3,138	195	1	548.3	0.005	-97.5	-	-	
소계		833,900		366,383	4,654		4,529		112,230	1528.6
중앙 아프 리카 (5)	DR콩고	32,665	703	79,301	23	-35.1	238	13.3	300	(*13 투자액 없음)
	우간다	26,086	1,752	3,804	14	-1.4	19	186.0	460	-4.2
	르완다	8,002	1,686	11,096	12	-0.4	1	95.4	800	475.5
	부룬디	3,037	912	9,201	2	161.2	0.058	-84.3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731	608	4,701	1	-99.1	0.108	-28.9	-	-
소계		71,521		108,103	52		258		1,560	152.0
총계		1,609,808		890,693	8,202	-16.3	7,224	37.6	200,475	71.3

(자료원 : IMF, 수출입은행, KOTIS)